

사회진보연대 주간 소식지

# 사회화와 노동

발행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문의 전화 02-778-4001~2 | FAX 02-778-4006 | E-mail pssp@jinbo.net

정기구독 신청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에서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623호] 국정원 사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반민중성이 드러나다  
- 대정부 투쟁 강화의 계기로
- [622호] “일터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 한 달에 2명 과로사, 핸드폰 산업 장시간 노동 철폐하자

# 국정원 사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반민주성이 드러나다

7월 2일, 45일 간의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더불어 국회는 2/3 이상 찬성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를 제출하도록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국정원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NLL 대화록 공개라는 ‘비상계획’으로 대응했다가 김무성·권영세 녹취록 공개로 거센 역풍을 맞은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과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 28일에는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모였다.

## 보수세력의 분주한 대응

분주해진 보수세력은 시급히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무조건 침묵을 유지하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불법 도청 전문 정당이라 몰아세웠다.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한 발언을 했고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비굴했다며 역공을 퍼는 한편, 지지율 하락에 대응해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과대 포장한 기사를 대방출했다.

8월 15일까지 진행될 국정조사에서도 보수세력은 몰타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공개 여부, 조사 대상, 증인 채택 등 모든 세부쟁점마다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목적인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용관 전 청장의 배후를 들춰내낼 경우 정부가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므로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 몰타기로 일관하는 보수세력

NLL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간 정쟁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지난 6월 국정원의 자체 대화록 공개는 몰타기를 위한 것이지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대결과 6월 남북당국자회담 무산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후 NLL 대화록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지만 그 초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의에 맞춰지면서 의미없는 논란만 반복하고 말았다. 여야가 공유하는 ‘NLL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빚어내는 원인이라는 핵심이 논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에서 NLL 회담록 원본을 열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지루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질 때까지 몰타기와 폭로전을 반복하면서 이슈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의도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국정원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문책과 형식적인 국정원 개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투쟁으로

6월 중하순 이후 시작된 촛불집회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공분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 직후에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촛불집회를 통해 장내를 감시하고 압박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7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일부 민중운동 단체가 함께 결합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역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 △공범자 처벌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정원 전면 개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 45일 간의 국정조사 기간은 추가 폭로와 몰타기가 지속되는 국면이고,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과 집권여당이 공모하여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마당에 국정조사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으로 향후 투쟁의 목표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모든 정황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정치공작에 의해 권력을 유지해 온 보수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여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정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해 ‘좁은 의미의 정치’, 즉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을 감시하고 억압해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 즉 계급투쟁에

항상 개입해왔다. 일례로 이번 논란의 와중에 범민련 소속 활동가가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동안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반값등록금 투쟁 확산을 차단하려 했고, KEC·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도 개입해왔다.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정원은 체제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회운동을 (외부의 적과 연계된) 내부의 적으로 간주해 억압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부른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설립했던 목표 역시도 ‘반혁명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였다.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그 이름을 달리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간의 경계는 항상 모호하기 때문에 선거개입과 같은 문제 역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국정조사 결과와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논의를 지켜볼 때가 아니다. 국정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대정부 투쟁 강화의 계기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민중적 억압기구인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며 투쟁을 벌여나가자. 아울러 현 사태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 반민중성을 적극 폭로하면서 현재 제기되는 민영화 반대투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자.

# “일터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 - 핸드폰 산업 장시간 노동 철폐하자

지난 3월 아모텍이라는 핸드폰 부품 회사에서 2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로사다. 뿐만 아니라 1월에도 뇌경색으로 한 명이 쓰러져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아모텍은 삼성 갤럭시4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안테나 등을 만드는 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삼성전자 등 원청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회사는 12시간 주야맞교대로 ‘휴일없이’ 일한다. 고 임승현씨는 31살의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매일 12시간 30분씩 일했다.



### 과로사의 이면엔 비약적인 회사 성장

임승현씨는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자기 일이 끝나면 항상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고, 못하는 일도 없어 전산 및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했다. 그러다보니 너 없음 안 된다는 말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더욱 일을 쉬기 힘들

었다. 그런데 임승현씨가 사망한 뒤 회사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승현씨가 죽은 이유는 고인이 평소 술 먹기를 좋아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망인인 고 권태영씨는 커먼모드필터(CMF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의 품질, 불량률 개선, 설비 개선 업무의 총 책임자였다. CMF는 아모텍을 2011년 적자에서 2012년 1800억 매출, 170억 영업이익으로 돌아서게 한 주역이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은 7.5배,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아모텍은 2013년 영업이익으로 25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장비, 같은 인력으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1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 권태영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은 실수로도 회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어떻게 한 공장에서 2명이나 과로로 숨졌는가를 묻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임승현씨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력을 쥐어짠 결과로, 권태영 씨 역시 물량을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과 물량 차질에 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숨졌다.

### 장시간·고무줄 노동과 불법파견

핸드폰 업종은 대표적인 활황업종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사와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

핸드폰은 너무나 빨리 모델이 교체되고, 그때그때 기술개발과 마케팅, 물량생산에 따라 큰 수익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 수익 변동이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곳이 핸드폰을 직접 만들어내는 노동 현장이다.

새로운 모델 생산이 시작되면 단시간 내에 엄청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비수기가 시작되면 한 달 동안 격일 근무 혹은 1~2주씩 무급으로 휴직을 시키는 것이다. 일 많을 땐 힘들어서 살 맛 안 나고, 일 없을 땐 돈 없어서 살 맛 안 난다.

‘불법파견’은 이러한 방식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도 10여 명씩 그만두고 또 입사하는 회사, 90%가 파견직인 회사, 파견/계약/정규직 단계별로 구분되어 인원 조정이 용이한 회사 등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불법파견은 이미 핸드폰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가 되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꿔야**

아모텍은 잔업·특근이 많아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회사다. 어차피 비슷비슷한 최저시급에, 차이가 있어봤자 상여금과 노동시간뿐인 공단에서 물량이 많다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에 한 뼉 구멍을 내려는 사람들이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임승현씨의 죽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은 올려서, 바깥 다니고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또 그러한 회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로사를 부르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저임금으로 인해 비롯된다. 잔업과 특근을 부르는 저임금 구조를 깨고, 물량 변동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좌지우지 되는 체제를 바꾸자.

